

기쁨과 희망을 함께 키워갑니다

장애 인식 개선 가이드북

나!

나를 찾는 대학
기쁨과 희망이 있는 대학



가톨릭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장애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똑같은 사회구성원입니다.

•

장애인은 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에 의한 어떤 차별이나 편견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

장애인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애인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 자신의 문제입니다.

기쁨과 희망을 함께 키워갑니다

장애 인식 개선 가이드북

CONTENTS

04 들어가는 말

- 06 1.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용어 이해
- 08 2. 주요 장애 유형 및 특성
- 10 3. 장애학생을 대할 때의 에티켓
- 14 4. 장애학생에 대한 교수학습지원
- 18 5. 장애학생지원센터 소개
- 20 6. 장애학생 도우미 활동 유의 사항

22 학생 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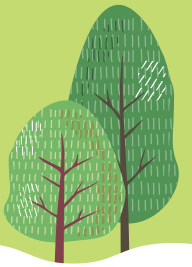
동행을 위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자칫 배려, 도움,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장애인은 장애를 다름과 개성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장애인은 스스로 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의 핵심은 편견을 없애는 것입니다. 비장애인의 편견으로부터 장애는 시작됩니다. 차이를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름을 인정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둘러싼 차별은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올바르게 균형 잡힌 장애인식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행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우리 대학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장애학생의 교육환경 개선 및 학습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체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톨릭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들이 장애로 인한 어려움 없이 대학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용어 이해



장애인을 특별한 사람이 아닌 비장애인과 똑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삶을 만드는 소중한 첫걸음은 장애인을 지칭하는 올바른 언어적 습관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올바로 지칭하는 언어적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비장애인을 정상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맥락을 내포하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며 장애우라고 지칭하는 것 또한 무리가 있습니다.

옆 페이지에 장애와 관련된 올바른 표현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장애와 관련한 올바른 표현들

- '장애우'라는 표현은 차별받는 느낌을 주므로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 장애인(O): '장애를 가진 사람'이란 뜻의 중립적 표현
 - 장애우(X): 비장애인 입장에서 장애인을 다른 집단으로 보고 만든 표현
- 일반적으로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을 '정상인'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이는 장애인을 '비정상인'으로 보는 견해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 '장애인'과 대치되는 표현을 쓸 경우에는 '비장애인' 또는 '일반인'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장애인' ↔ '비정상인'(X), '비장애인' 또는 '일반인'(O)
- 그 밖에 장애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표현(예: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을 사용해야 하며,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비인격적 표현 등(예: 장님, 병어리 등)은 사용 자체를 주의해야 합니다.

적절한 표현	적절하지 않은 표현
비장애인, 일반인	정상인
장애인	장애자, 장애우
장애를 갖다	장애를 앓다
조현병	정신분열증 · 정신장애

2 주요 장애 유형 및 특성



비장애학생은 장애학생을 학업 동료로서 인정하고 그들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 유형과 장애 유형별 학생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장애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자립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학생을 돕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며 더불어 성장할 때 우리의 캠퍼스는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체 장애



발달 장애

가. 시각 장애란?

1. 시각장애의 정의

시각계의 손상 등으로 일상적 활동에 참여하는 데 곤란을 지닌 경우를 말하며,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합니다.

- 전맹(blindness) : 일반 글자를 전혀 볼 수 없는 경우로 점자를 사용하여 학습하거나 음성보조기기 등을 사용하여 학습합니다.(교정시력이 각각 0.04 미만)
- 저시력(low vision) : 일반 글자를 보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다양한 보조기기(문자 확대기, 독서확대기 등)를 통하여 글자를 확대하여 보면서 학습합니다.(교정시력이 0.04 이상 0.3 미만)

2. 시각장애학생의 특성

- 걷기와 같은 동적인 운동기능은 느린 편이며, 안정적인 자세 잡기 등이 어려운 편입니다.
- 시각장애학생은 다른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지적인 문제는 없으며, 시각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도구 및 교수, 동료학생들의 교육적 배려가 있으면 비교적 학습수행이 용이한 편입니다.
- 시각장애학생이 이동·보행하는 방법에는 안내자와 함께 보행, 흰 지팡이(케인)를 사용한 보행, 안내견을 이용한 보행이 있습니다.

나. 청각장애란?

1. 청각장애의 정의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청각을 통한 언어 정보교환이 어려울 정도의 청력손실이 있는 농(deaf)과 어느 정도 가능한 난청이 있습니다.

2. 청각장애학생의 특성

- 청각장애학생이 모두 수화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언어구사력, 수화 및 독화능력 등 언어능력은 개별 차이가 큼.
- 청력이 손실된 시기와 손실 정도에 따라 학업성취도 및 언어구사력, 수화능력, 독화능력 등 의사소통 및 언어 능력에 개별 차이가 있습니다.
- 장애 특성 때문에 그들이 지니고 있는 학습 가능성에 비해 실제로 나타나는 학업 성취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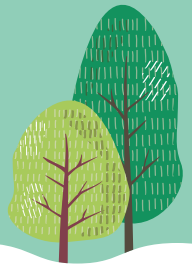
다. 지체장애란?

1. 지체장애의 정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환으로 신경, 근육, 팔, 다리, 척추 등의 이상으로 오는 장애로 몸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지체장애학생의 특성

- 정형외과적 장애 : 골격구조 즉, 뼈, 관절, 팔, 다리 및 근육과 관련된 장애로 몸의 지지 및 운동 동작이 곤란하거나 학습활동과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이 요구됩니다.
- 신경학적 장애 :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신체의 특정부위를 움직이고, 사용하고, 느끼며, 조절하는 능력의 제한되는 장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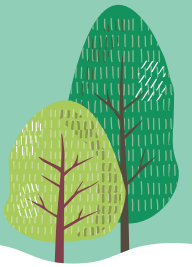


가. 시각장애학생

대화	-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시각장애학생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고, 이름을 모를 경우에는 시각장애학생의 팔을 점잖게 건드리거나 내가 누구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여 알려 줍니다. - 대화를 할 때는 시각장애학생과 눈을 마주칩니다. - 공공장소에서 시각장애학생과 함께 있다가 잠시 자리를 비울 경우 얼마 후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립니다. - 시각장애학생은 시각 대신 청각으로 대부분의 정보를 얻기 때문에 지나치게 큰 소리로 대화하지 않도록 하며, 지나친 소음이 있는 장소 또한 피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길 안내	- 시각장애학생에게 길을 안내할 때는 “여기, 저기, 이것, 저것” 등과 같은 애매한 표현은 피합니다. - 도로 상태, 도로의 위험적 요소, 목적지까지의 대략적 거리, 계단의 수 등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안내보행 (동행)	- 시각장애학생이 팔꿈치 부분이나 팔꿈치 위를 잡을 수 있도록 내줍니다. (시각장애학생의 팔을 잡는 것은 피하도록 합니다.) - 계단, 엘리베이터, 회전문 등 특정 장소에서는 상황을 미리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합니다. - 출입문을 열고 지나가야 할 경우에는 문을 미리 열어 주거나 시각장애학생의 손을 손잡이에 대준 후 직접 열도록 합니다. - 갑작스레 시각장애학생의 옷자락이나 어깨 등 신체 부위를 잡지 않도록 합니다.
케인 (지팡이)	- 시각장애학생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 시각장애학생이 지팡이를 이용할 때는 속도가 다소 느리더라도 반드시 도와주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도와주도록 합니다. - 시각장애학생이 지팡이 사용 시 팔을 내주어야 할 경우에는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팡이의 반대편에서 팔을 내주도록 합니다.
기타	시각장애학생이 할 수 있을 것 보다는 무엇을 할 수 없을지에 대해 먼저 생각 하고 도움을 줍니다.

나. 청각장애학생

대화 (구화)	- 대화를 시작하기 전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거나,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하도록 합니다. - 소음이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 청각장애학생이 나의 표정과 입모양 등을 볼 수 있도록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며, 적당한 크기와 일정한 소리로 약간 느리게 또렷한 입모양으로 간략히 대화합니다. - 말끝을 흐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대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야기 도중 다른 상황(전화가 온 경우, 차가 지나가는 경우 등)이 생겼을 경우에는 미리 설명해주도록 합니다.
필담	- 중요한 내용을 전달할 경우에는 글로 소통하도록 합니다. - 글씨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도록 합니다. - 필담을 나눌 시, 청각장애학생이 내용을 잘 읽고 이해하고 있는지 표정을 관찰하여 확인하도록 합니다.
전화통화	- 전화통화가 가능한 청각장애학생과 통화할 경우 전화벨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 소음이 없는 곳에서 통화하도록 합니다. - 분명하고 또렷한 소리로 통화하고, 문장마다 끊어서 이야기하여 청각장애학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타	- 들리지 않는 학생이라고 하여 반말을 하거나 험담을 하는 등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 청각장애학생은 외형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리고 배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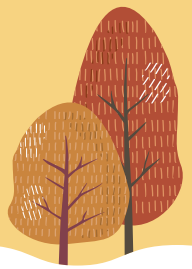


다. 지체장애학생

대화	- 지체장애학생의 경우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체장애학생 사생활에 대한 대화는 삼가도록 합니다. -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있는 지체장애학생의 경우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세요. 필요 시 필담을 나눕니다.
기본 에티켓	- 지체장애학생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반드시 물어본 후 도움을 주도록 합니다. - 휠체어, 목발 등 지체장애학생 보조기기는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옮기지 않으며, 편의시설은 지체장애학생이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양보합니다. - 강의실에서는 출입문이 가까운 곳, 휠체어 공간이 충분한 곳 등 편리한 좌석으로 안내하며, 지체장애학생 혼자 동떨어진 자리에 앉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휠체어 사용	- 움푹 패인 곳이나 땅이 고르지 못한 곳은 되도록 피하도록 합니다. [계단이나 경사로를 오를 때] - 휠체어를 뒤로 뉘어 앞바퀴가 들리도록 하며, 경사가 급한 경우 경사를 지그재그로 오릅니다. [계단이나 경사로를 내려올 때] - 휠체어 사용 학생에게 앞으로 내려오는 것과 뒤로 내려오는 것 중 좋은 방향을 택한 후 내려옵니다. - 경사가 급한 경우 되도록 역방향으로 내려갑니다.

넘어진 경우	- 지체장애학생의 경우 부딪혀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보행 중인 지체장애 학생과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지체장애학생이 넘어졌을 경우 혼자 일어나는 것이 더 편한 경우가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지 반드시 미리 물어보도록 합니다. - 지체장애학생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표현한 경우, 넘어진 학생을 잡지 말고 자신의 팔을 내밀어 잡고 일어나도록 합니다.
기타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를 잡아 주도록 합니다.





● 교수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장애학생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장애학생은 용기를 내서 더욱 열심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지원방법을 잘 모를 때는 직접 학생에게 물어봐주십시오.

장애학생 당사자에게 직접 질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 자신의 대학 생활 경험에 기초한 실제적인 요구 및 제안들은 학습 활동 지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 장애학생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십시오.

학생의 장애와 지원 요구에 대한 개별 면담 내용은 개인에 따라 매우 민감한 문제일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비밀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안적인 평가는 동일한 기대로 공정하게 실시해주시십시오.

장애학생은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학습수행에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통의 학생들과는 다른 과제 제시 및 평가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애학생이라고 해서 과대평가하시거나 장애로 인한 표현의 제한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과소평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기대를 가져주세요!

장애학생이 또래 학생들과 같은 수준에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동일한 기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과 보조가 제공된다면, 장애학생은 높은 성취를 보일 수 있는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 시각 장애학생

1. 수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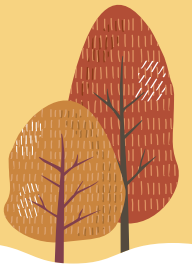
- 대체 자료 제공
 - 강의계획서, 교재를 비롯하여 강의에 필요한 자료를 점자, 확대자료 등의 대안매체로 전환하여야 하므로 강의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재, 강의 관련자료를 점자, 확대 자료 등의 대안 매체로 전환하여 제공합니다.
- 지정좌석제
- 대필도우미학생 지원
 - 시각 장애학생은 판서를 볼 수가 없으므로 대필 도우미학생의 수업청강을 허용하며, 지정 좌석제를 실시하는 경우 도우미 학생 자리도 함께 마련합니다.

2. 과제 조정

- 대안적 과제 제시
 - 전적으로 시각에 의존해야 하는 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당 교과의 교육목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안적 과제를 제시합니다.
 - 조작이 어려운 시각적 매체(파워포인트)보다는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 제출기한 연장
 - 과제 작성에 필요한 시각적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큰 학생에게는 제출 기한을 2~3일 연장합니다.

3. 평가 조정

- 시험시간의 연장
 - 시각 장애학생의 문제 독해와 응답의 불편을 감안하여 시험시간을 연장합니다.
(예 : 시험시간의 1.5배)
- 확대시험지 제공
- 별도의 시험 장소 제공
 - 구술로 시험을 볼 경우, 별도의 시험장소를 제공합니다.
 - 보조도구(노트북, 휴대용 도서 확대기)를 이용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나. 청각 장애학생

1. 수업 지원

- 자리배치
 - 교수자의 입모양(구화)을 볼 수 있으며 잘 들리는 좌석으로 배정하여 상대방의 얼굴이 잘 보이는 환경으로 구성합니다.(예 : 앞좌석 우선 배정)
- 수업자료 제시
 - 시각적인 보조자료(PPT, OHP, 기타 자료) 제시합니다.
 - 동영상, 음악, 오디오 자료 등 듣기 자료의 경우 내용을 출력하여 제공합니다.
- 대필도우미(속기사) 지원
 - 청각장애학생은 강의내용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강의내용을 전사하는 대필 도우미 학생이나 속기사가 배치되므로, 도우미와 청각장애학생이 정면으로 보기 편한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 도우미제도는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선발·지원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과제 조정

- 토론 및 발표과제
 - 토론 및 발표시간에 청각장애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 청각장애학생의 발표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합니다.(예 : 다른 학생의 양해구하기, 도우미 지원 허용)
- 대체과제 제시
 - 영화감상, 음악감상 등 청력을 사용해야 하는 과제는 대체과제를 제시합니다.

3. 평가 조정

- 듣기시험, 구술시험시 대체시험 제공
- 대필도우미 동반 시험 허용
- 시험 중 중요한 전달사항은 칠판에 적거나 청각장애학생에게 별도 메모전달

4. 기타

도우미나 속기사에게 “이런 말은 적지마세요.”, “이 말은 통역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 지체 장애학생

1. 수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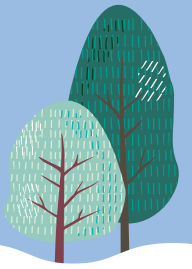
- 강의실 접근성 정보 사전 안내
 - 휠체어 이용 장애학생의 경우 강의실의 물리적 접근성에 따라 강의 참여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가질 수 있으므로 개강에 앞서 관련 정보에 대해 사전 안내합니다.
- 강의자료 스캔 파일 제공
- 지정좌석제
- 대필도우미학생 지원
 - 필기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경우 대필도우미학생이 수업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도우미 학생을 지원하며, 지정좌석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우미학생의 자리도 함께 마련합니다.

2. 과제 조정

- 대안적 과제의 제시
 - 워드나 PPT파일 등 키보드나 마우스를 조작해야하는 과제는 대안적인 과제(녹음자료 제출 등)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제출기한 연장
 - 과제 작성에 물리적 어려움이 큰 학생에게는 제출 기한을 2~3일 연장합니다.

3. 평가 조정

- 시험시간의 연장
 - 지체 장애로 인한 문제지의 접근성 및 답안지 작성 등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시험시간을 적합한 수준으로 연장합니다.(예 : 시험시간의 1.5배 허용)
- 평가방법 조정
 - 시험문제를 읽어주거나 녹음 자료로 제공하거나(대독), 종이로 된 문제지 접근이 어려운 학생을 위하여 컴퓨터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구두 응답을 대신하여 도우미가 대필하여 답안을 작성하게 하거나 필기로 답안지를 작성하기 어려운 학생을 위하여 컴퓨터 등의 매체 활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단답형으로 정답을 작성 할 수 있도록 시험문제를 별도 제공합니다.
- 별도의 시험 장소 제공



가톨릭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장애학생이 학내에서 원만하게 학습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대상 학습지원 및 진로취업지원, 대학생활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도우미 활동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수업과 이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 장애학생지원센터 업무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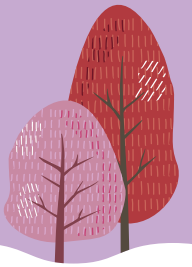
구분	주요 지원 내용
학습지원	• 선수강신청제 운영 • 대필 도우미, 전문 속기사 등 학습 도우미지원: P. 19 참조 • 담당교수에게 강의 및 시험배려 안내문 발송 • 강의실 내 맞춤형 책상제작 지원 • 학습기자재 대여 등 • 전공 및 교과 보충학습 멘토링 • 장애학생 장학금 지원
진로취업지원	• 각 대학과의 장애학생 Pool 공유 및 장애인 고용공단과 연계한 취업 지원 • 장애학생 진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진행 및 정보제공
대학생활지원	• 신입 장애학생 오리엔테이션 실시 • 장애학생 간담회 정기 개최 • 개별 상담 프로그램 • 문화행사 실시 • 기타: 기숙사 우선배정 • 교내시설 불편사항 접수 및 개선 • 교내 전용 쉼터 '힘이 되는 사람들' 운영(니콜스관 N439호)
장애인식개선 교육 진행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용 장애인식개선 교육자료 제작 •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 도우미 대상 장애인해 교육 실시 • 장애인식 안내 책자 제작, 관련 공모전 등 실시

나.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 안내

장애학생은 신체적 특성에 따라 때로 다른 사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학생도우미제도는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도움을 주는 학생이나 도움을 받는 학생 모두 상호 존중과 신뢰가 중요합니다. 도우미는 장애학생을 단순히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원 인력이므로 봉사정신과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활동에 임하여야 합니다.

구분	주요 지원 내용
수업지원 도우미	• 장애학생과 함께 수업에 참여하여 노트필기, 노트북 속타, 낭독 등 장애학생의 수강 및 학습을 지원
이동 도우미	•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장애학생의 이동 지원
선발 안내	• 모집 시기: 매 학기 초 • 신청방법: 도우미 모집내용 확인 ▶ 신청서 작성 ▶ 도우미 선발 및 교육 ▶ 장애학생과의 만남 ▶ 도우미 활동 • 특전 : 도우미 장학금 및 ELP 봉사점수(30점) 부여





가. 장애학생 보조 도우미 선발

1. 근무기간

매 학기

2. 신청조건

- 장애학생에 대한 성실성과 책임감
- 가톨릭대학교 재학생
- 워드400타 이상 가능한 학생
- 필기보조 희망 과목 전공자 우대

나. 장애학생 도우미 지침

1. 수기출근부 작성

- 도우미 활동 후 매주 1회 이상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수기 출근부 작성
- 수기 출근부 작성 시 도우미 활동보고서 동시 작성(매주 금요일 수기 출근부 확인)

2. 온라인 출근부 입력

- 도우미 활동 후 5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출근부 입력
- 5일 이내 반드시 입력, 미입력시 담당자에게 연락
- 미입력시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미입력사유서 작성

※ 부득이한 사유로 도우미 활동을 중단해야 할 경우, 장애학생과 상의 후 센터 담당자에게 고지

다. 장애학생 필기보조 요령 및 주의사항

- 수업시간에 강사의 입에서 구현된 수업과 관련한 모든 내용, 판서 내용을 노트북으로 속기하거나 대필(자의적 해석 후 요약하는 것 금지)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학생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세부적인 방식을 정합니다.
- 그 날 수업한 내용에는 반드시 과목명과 수업날짜를 명시하고 당일에 장애학생에게 파일을 전달합니다.
- 장애학생이 원할 경우 장애학생과 수업 시작 10~15분전까지는 다음 장소로의 이동 및 활동보조를 해야 합니다.
- 장애학생이 원할 경우 시험보조, 답사보조 등을 해야 합니다. 시험보조의 경우 가능한 보조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교수, 강사와, 장애학생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예: 답안지 작성 필기보조, 시험지 읽기, 노트북 사용 등)

※ 지정좌석 스티커를 사용 중인 장애학생의 경우, 다른 학생들이 해당 좌석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수업 시 장애학생의 특성에 따라 도우미 활동 진행



학생수기

속기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도움을 받는 장애 학생 언니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계속 격려해주고 이해해주셔서 속기를 잘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의 장점을 살려 언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뿌듯했습니다.

-박선정-

장애가 그 사람 전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는 단지 그 사람의 한 가지 특성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해 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_^

-서연주-

낮가림이 심해 교재제작만 하다가 직접 데리러가서 기숙사로 안내해 드리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도맡아야했던 도우미를 처음 해봤습니다. 그 형은 매우 긍정적인 생각만을 갖고 계시고 항상 웃는 분이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한 학기 동안 즐겁게 생활했고 형을 보며 아무리 힘들어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항상 웃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또한 심했던 낮가림이 줄어들어 인간관계에서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사람은 주변인의 영향을 무조건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 즐겁게 도우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에게 항상 감사하고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준 장애 학생지원센터에도 감사할 뿐입니다.

-김동조-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 수업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기 도우미들의 도움 덕분에 수월하게 수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교의 어려운 내용을 보다 쉽게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생활을 도우미와 함께해서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박채영-

참고자료

- “모든 이와 함께 하는 배움의 과정 : 장애학생과 더불어” 자료집, 가톨릭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 2018
- 장애학생의 수강과목 담당교수를 위한 교수·학습지원 안내서, 서강대학교, 2017
- 장애학생지원 가이드_고려대학교
- 장애관련 용어 가이드라인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홈페이지

가톨릭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이용시간 평일 08:30 ~ 17:30
위 치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43
가톨릭대학교 니콜스관 1층 109호
연 락 처 02-2164-4699 / fax: 02-2164-4763
E - Mail cukstudent@gmail.com
홈페이지 www.catholic.ac.kr/www/campuslife46.html

이 책자는 '조병우 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